

# 하는 사이 없이 하는 것이 마음의 진짜 자비한 보시!

## 15면에서 계속

데 마음 보시를 해서 잘되기에 전에 벌써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리고 애들이 또 활력이 없으니가 우선 먹을 걸 꼭 가면서 정신적으로 보시를 해 줘야 잘될 거 아닙니까?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원주 경찰서 앞에 어떤 미친 여자가 말입니다. 만날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경찰서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장이나 뭐 어떤 분이 나오든지 간에 그냥 차를 막고는 횡방을 놓았습니까. 그래서 붙들어서는 그냥 저기다 내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연방 거기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상원사 토굴에 있을 때인데 내려갔다가 아이,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이, 똥개 새끼야!' 하하하... 그때만 해도 똥개 같았죠. 뭐, 찢어진 바지에다가 그냥 밀짚모자 하나 쓰고서 그냥 몸은 뭐, 개미하리 같았으니깐 말입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도 없고 노모 한 분밖에 없는데 그 노인네도 병자예요.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먹는 거나 용돈을 다 대 주면서 마음의 보시를 했던 겁니다. '과거에 수억겁을 거쳐 올 때에 나는 어떻게 안 했을까? 바로 옛날의 내 모습과 같구나! 그때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걸어왔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 앞을 만날 줄라고 그랬습니다. 빗자루를 주고 말입니다. 자꾸 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들어요. 그냥 만날 아침마다 나와서 거기를 쓸고 그러더니 아주 나아사요.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대중 박수)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시시때때로 닦쳐오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무것짜 말을 해서 대처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내가 변소에 있으면 주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변소에 있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더럽고 깨끗하고 이거를 떠나서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은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기뻐하고 믿는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란 뜻은 몸, 이 안에서 더불어 같이 살고, 내가 따로 없이 더불어 살고 바깥에서도 내가 따로 없이 더불어 같이 사니 어찌 그것을 따로 해서 한 인간의 이름으로 지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같이 내가 아니 뭐이 없이 내가 되는 그 한마음을 규정지어서 부처님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라고 한 것도 역시, 여러분 몸속에 의식들이 모두 같이 하고 있으니 한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표현하자니까 '남' 자를 붙인 거예요.

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면, 나를 다스려 가는 나를 안다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하나로 돌아가는 도리를 알 수 있다 이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없다면 하나님도 없으니깐 말입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도 없었니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각자 너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이요 귀신 놀음 아니라.' 이런 말을 한 것을 '각자' 라는 소리를 안 해서 모두 편잡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죠. 부처님은 똑바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부처님께서도 '각자 너 자체를 모르면서 타인을 믿는다면

생을 다 깨낸다 하더라도 좋지 않는다. 그 가운데에 그대로 내 마음 쓰는 게 법이나라.' 하셨습니다. 마실 수도 있고 깨낼 수도 있고 두드러지지 않고 졸지도 않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도 그랬죠. '너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면' 했으니 그 '나' 가 '각자 나' 라고 한 소리에 잘못 들어서들 그럴 거예요. 아, 그랬을리가 없죠.

하여튼 여러분이 모두 지금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잘 이

그래서 이렇게 일러 줬죠. '그 마음과 내 마음 이 부모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으니까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풀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개 마음에 밝게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진짜로 거기가 보라. 그런다면 바로 불이 들어 올 수 있다. 그러면 저절로, 제 발로 그냥 들어오게 된다.' 하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실천해 본 사람이 '스님, 참 고맙습니다. 아유!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김치 항아리를 뒤는데 아들이 다가오더니 그냥 '어머니, 힘드시죠? 내가 좀 들어 드립니까?' 하더라고요. 그

거를 아셔야 합니다. 집이 허물어지면 주인이 고치지 집이 서들러서 고침니까? 아, 생각을 해 보세요. 주인이 고치지? 그러니까 나의 집합소인 고타, 내 집이 헐어지고 어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고장 난 건 그 속에서 작용해 주는 바로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은 것도 그 속에서 지은 거니까 허물어지는 것도 그 속에서 고쳐야죠? 이열치열이란 말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앞날을 위해서 정신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정신계와 물질적, 정신계와 이 몸이 풀이 아니게 움직여간다는 것을 진실히 믿고서 자기 몸, 자주는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자기 부(父)를 진짜로 믿어서 풀이 아니게 평등공법을 쓰신다면 아주 좋을 겁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을 거쳐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마음공부 하다가 그 몸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그 차원은 그대로 가지고 오 세상에 다시 와서 또 공부하실 겁니다. 이 공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원수를 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혼란을 일으킬까 봐 아예 어떻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주 한울에서, 즉 도리천에서, 즉 말하자면 열쇠를 주는 것이 바로 해인(海印)을 받는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일체제물의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체 모든 중심에서 증명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대로 자기 정신계의 자기 주처를 진짜로 믿고,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세상을 한번 새롭게 걸어 보세요. 그럼 실현돼 되고 체험도 되고, 눈이 밝아져서 바다를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아하! 자 동적으로 그 물 밑까지, 태양력이 들어가지 않으니깐 물 밑까지 살리게 하기 위해서, 또 먹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물 밑까지 파도를 치고 그냥 돌게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파도가 치고 온통 모두 물이 뒤집히면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고생하는 것이 고생을 하다가 보면 느끼는 점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고생한 게 제기가 되어서 그제 참 큰 재산이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요것은 말로는 어떻게 다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체험도 되시고 또 자기가 진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기는 의식적으로 그냥 사는 거니까요.

※ 위 법문은 1996년 1월 2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미음원(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안 된다.' 타인은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타인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타인을 믿어서 깨닫는 게 아니니 타인을 믿는다면 바로 도깨비장난과 같은 귀신 놀음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도 자기네들이 각자 모두 잘 알아들을 줄 알고 '바로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귀신 놀음이요, 도깨비장난이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자'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전부 예수만 찾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야, 영을 알려면 영이 되어 영을 알죠? 영세계에 가려면 내가 영세계에 들어가야 영세계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 수많은 일체 만물만생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일체 만물만

들어 가야 하고 발전이 되더라도 진실하게 발전이 되어야 하고 진실한 국민이 돼서 또 자녀들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 학교를 안 가고 온통 나가서 자고 나쁜 사람들에게 모두 얽여서 다니고 울고불고 어머니들이 그러는데 내가 그랬죠. '아무리 요즘의 자식 자놈의 자식 하면서 때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건. 마음에서 고장 난 거니까 마음으로 고쳐야 되는 거지.' 하고요. 육신이 들어오면 '요놈의 자식아, 너는 배를 시기에 배우지 않고 요다음에 강퍽을 차려' 하고 그냥 뽕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모질게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 하나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어린애를 뱀도 태고야 얼마나 중요하지도 모르고 뽕소리 다 하고 별 마음 다 갖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부터 그렇게 좋아 지더라고요. 100% 효자는 되지 않았어도 반 이상, 삼분지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효자가 되기 이전에 자기가 잘돼 나가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같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스위치도 그쪽과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니까 함께 불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가설이 안됐더라도 하나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자리에건 나라의 소임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해야 일하는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다 살리는 힘이 될 겁니다.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어떤 곳의 머리 깎은 스님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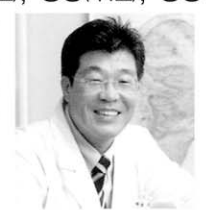
###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이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쪽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낸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중(輕重), 중중(中中), 중중(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을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중중(中中), 중중(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과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 (社)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종도모 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승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인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 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장중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종을 일으켜 종풍을 정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난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 등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 특징

-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 7. 시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고장,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